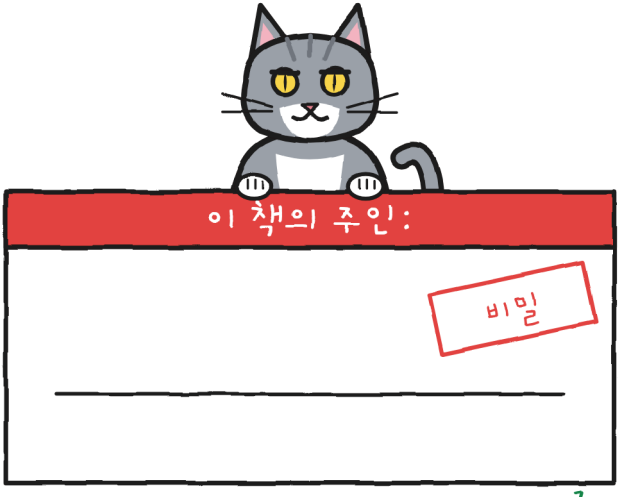


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 —J.

이걸 주웠다면, 천둥이 치기 전에는 열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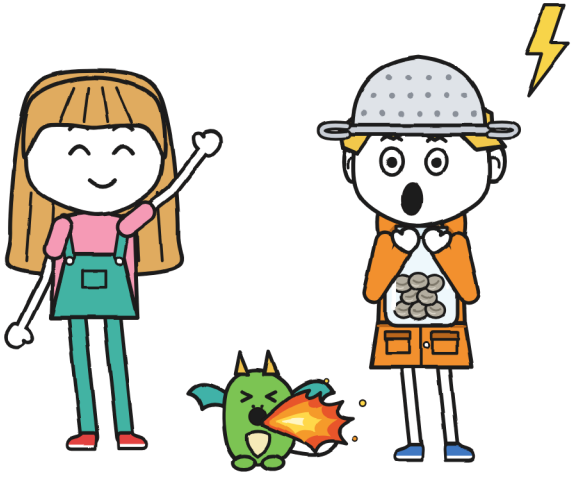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너는 따라 하지 마. 몇 쪽에 걸쳐 이어지면 '여기부터 화 여기까지'라고 적혀 있어. 진짜 폭풍이 칠 때는 마지막 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Lui Eriksson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 2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시리즈 두 번째 책. 첫 번째 책: ‘이 택배는 문다’.

글과 그림: Lui Eriksson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초판: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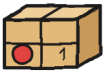
© 2026 Lui Eriksson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천둥은 없다. —J.



제1장

폭풍 사냥꾼

맞은편 가게에는 덜덜 떠는 택배가 하나 있다.

지난 토요일에 딱 한 번 움직였다. 그때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가늘고 끊이지 않는 떨림이다. 동물병원 대기실에 앉은 작은 강아지가 떠는 것 같다. 이레째 그러고 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심해진다.

그리고 나한테는 새 공책이 있다.

공책 1권은 다 썼다.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라 아줌마가 이걸 줬다. 표지는 파란색이고, 한쪽 모서리에는 가게의 빨간 도장이 찍혀 있다. 첫 장에는 제목을 썼는데,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

배달 공책 2 • 주인: 구니. 공식.

공식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공식적으로. —J.

마라 아줌마는 공식 공책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한다. 두고 보자. 이 공책에는 벌써 그림이 하나 있다.

지난 공책에 대해 알아 둘 게 있다. 지지난 토요일에 훌리타(초록색 메모를 쓰는 아이)와 나는 밤에 널다리를 건너, 어른 한 명 없이, 몇 년 동안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알을 배달했다. 그 알이 지금은 부스러기, 내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하는 아기 용이다. 가게의 마녀 마라 아줌마는 우리에게 벌을 주었다. 토요일마다 10시에 가게에 나오는 것. 나는 이 동네에 새로 온 아이고, 내 물건은 아직 거의 다 상자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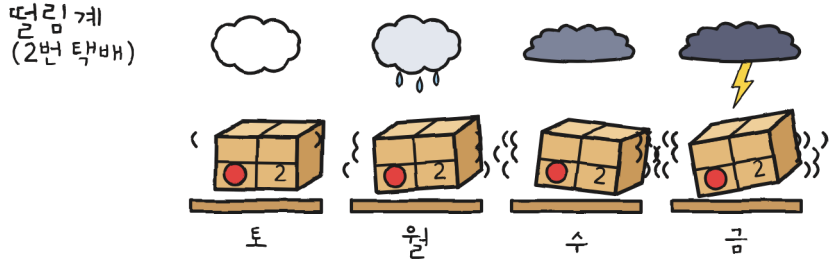
떨고 있는 건 2번 택배다. 돌아온 택배를 두는 선반에 놓여 있고, 나는 그 라벨을 외우고 있다. 이번 주에는 날마다 오후에 읽었다. 선 채로, 건드리지 않고, 마라 아줌마가 나를 못 본 척하는 동안:

- 2번 · 파손 주의.
- 받는 곳: 플로라, 운하길 9번지.
- 요청 사항: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 보내는 사람: R.

둘레에는 '반송' 도장이 스물세 개 찍혀 있다. 혹시 떨어진 게 있을까 봐 두 번 세어 보았다.

돌아온 택배는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다. 받는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서명하지 않으면, 해 뜰 때 날아서 선반으로 돌아간다. 오리 떼처럼 줄을 지어서. 이제 열아홉 개가 남았다. 벽에 초록색으로, 훌리타의 글씨로 적혀 있는데, 훌리타가 초록색으로 쓴 건 지워지지 않는다. 택배는 전부 같은 사람이 보낸다. R. 그 사람에 대해 알려진 거라곤 글씨를 아주 못 쓴다는 것뿐이다.

나는 날마다 오후에 얼마나 떠는지, 그리고 날씨가 어떤지 적었다. 그렇게 2번 택배 떨림계가 나왔다. 금요일에는 구름 속에 번개가 들어 있었다.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야. 폭풍이 오니까 떠는 거야. 토요일 저녁 6시에. 일기예보를 여섯 번이나 확인했어. —J.

나는 메모를 두 번 읽었다. 두 번째에는 6시라는 부분만.



토요일 10시,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라색 모자를 쓰고, 꺼진 양초 냄새가 나는 불꽃을 튀기는 도장을 든 채. 2번 택배는 두 손에 들려 있었다. 선반이 아니라 손에. 도장 옆에는 아직 고무 개구리가 있었다. 누구 것도 아니게 된 뒤로 내 것이 된 개구리다. 그리고 번개배송 배달원 토뇨는 헬멧을 쓴 채 서 있었다. 토요일은 토뇨의 벌이기도 한데, 토뇨는 벌도 배달처럼 받는다. 시간을 딱 맞춰서, 아무것도 벗지 않고.

"스물세 번 내가 직접 가져갔어."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런데 폭풍이 칠 때는 한 번도 없었지."

마라 아줌마는 엄지로 라벨을 쓸었다. 나는 점점 잿빛이 되는 진열창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배달은 여느 때와 다를 것이었다.

"이건 말이야." 마라 아줌마가 선언했다. "너희가 배달해. 오늘 오후에."

훌리타가 '남은 택배 19' 팻말에 닿을 만큼 폴짝 뛰었고, 내려앉았을 때는 벌써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뛰지 않았다. 두 마디, '오늘 오후'와 한 시각, 6시가 남았는데, 택배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라 아줌마는 조건을 세 가지 걸고 손가락으로 꼽았다:

1. 5시에 출발해. 폭풍이 오기 전에.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플로라 아줌마 집에 있어.
2. 너희 가족은 이미 알고 있어. 플로라 아줌마도.
3. 규칙은 라벨에 쓰인 그대로야. 천둥 치기 전에는 열지 마. 그리고 머리 위에서 치는 천둥이어야 해. 멀리서 치는 건 안 돼.

나는 속임수를 알아챘다. 베라 아줌마가 우리를 야단칠 때 한 말과 거의 같은 규칙이었다. 베라 아줌마는 부스러기의 주인이다. 다만 야단을 친 뒤가 아니라 앞서서 말한 것뿐이다. 마라 아줌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다 알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는 꾸중이 택배보다 먼저 도착한다.

"같이 안 가요?" 훌리타가 물었다.

"난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마라 아줌마는 이렇게 대답하고, 진열창 너머로 점점 잿빛이 되어 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계산대 끝에는 담요 한 장이 개켜져 있었고, 스키 귀마개와 냄비가 하나 있었다. 나는 다 보았다. 그리고 택배를 바라보았다.

그때 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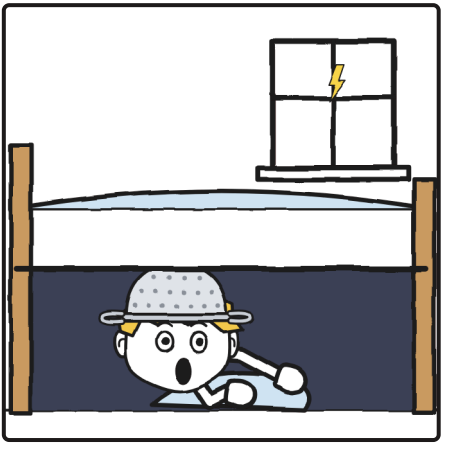
"넌 폭풍 좋아해?"

훌리타는 나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나는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

"엄청 좋아해. 예전 동네에서는 전문 폭풍 사냥꾼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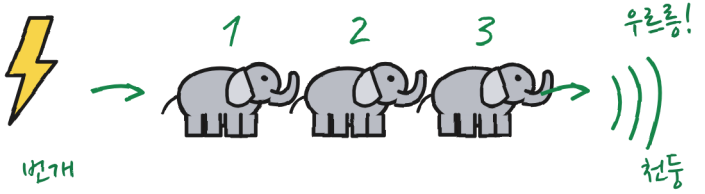
지난 공책에서는 거짓말이 돌아오는 데 하루와 하룻밤이 걸렸다. 이번에는 길을 줄여 주기로 했다. 그날 아침에 바로 거짓말을 그리고, 옆칸에는 진실을 그렸다.





체는 부엌에서 쓰던 철제 체였고, 손잡이가 두 개 달려 있었다. 번개를 막아 주지는 못했다. 나는 머리에 뭘 쓰고 있으면 도움이 됐다. 지금 그 체는 이삿짐 상자 어딘가에 들어 있을 텐데, 엄마가 일주일째 찾고 있는 가위 옆일 것이다.

훌리타가 내 공책에다, 허락도 없이, 초록색으로 폭풍 세는 법을 알려 주었다.



코끼리 하나, 코끼리 둘, 코끼리 셋...

코끼리 7마리 = 7초

코끼리 3마리 = 3킬로미터 (대충)

코끼리 0마리 = 머리 위!

↑ 이게 라벨에 쓰인 천둥이야.
멀리서 치는 천둥은 택배를 못 열어.

코끼리가 더 많다: 저 번개는 더 먼 곳에 쳤다.

천둥소리가 들리면, 멀리서 나는 소리라도: 안전한 곳으로!

번개가 친 순간부터 천둥이 칠 때까지를 코끼리로 센다. '코끼리 하나'는 대략 1초이고, 셋이면 1킬로미터다. 그렇게 하면 그 번개가 대충 얼마나 먼

곳에 쳤는지 알 수 있다. 다음 번개가 어디에 칠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셈이 알려 주지 않는 건 언제 나가도 되는지인데, 훌리타 말로는 그건 그림도 없는 다른 규칙이다. 마지막 천둥이 친 뒤 30분.

속으로 세어 보았더니 엄청나게 빠른 코끼리만 나왔다. 쓸모없는 코끼리다. 나는 아무것도 셀 필요가 없었다. 나는 폭풍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적어 두었다.

토뇨는 내 어깨 너머로 라벨을 읽었다. 자기 것이 아닌 건 뭐든 그렇게 읽는다.

"번개배송은 폭풍이 칠 때는 배달 안 해." 토뇨는 이렇게 말하며 노란 가방의 작은 글씨를 보여 주었다. 번개배송 ·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그리고 훌리타의 돋보기로 보면 별표가 하나 있었다. *폭풍이 치면 제외.

"아직 폭풍은 안 쳤잖아." 훌리타가 말했다.

토뇨는 작은 글씨를 다시 훑어보았다. '아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래서 토뇨도 우리와 같이 갔다. 토뇨는 코끼리를 한꺼번에 센다. "하나둘셋!" 하고, 배달 한 건 처리하듯이. 토뇨에 따르면 모든 폭풍은 1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용기인지 코끼리가 모자란 건지 나는 모르겠다.



5시에 나는 비옷을 가지러 우리 집으로 건너갔다. 훌리타는 현관에서 기다렸다. 엄마는 비옷을 손에 늘어뜨린 채 집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에게는 주황색에 대한 이론이 있다. 멀리서도 눈에 띈다는 것이다. 엄마가 어디서 볼 생각인지는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주황색 입어." 엄마가 말했다. "정말 갈 거니? 너 천둥이 칠 때면..."

"엄마, 다녀올게!"

나는 계단을 두 칸씩 뛰어 내려갔다. 현관의 메아리 덕분에 엄마 말의 절반쯤은 가는 길에 사라질 거라고 계산했다. 사라지지 않았다. 훌리타가 아래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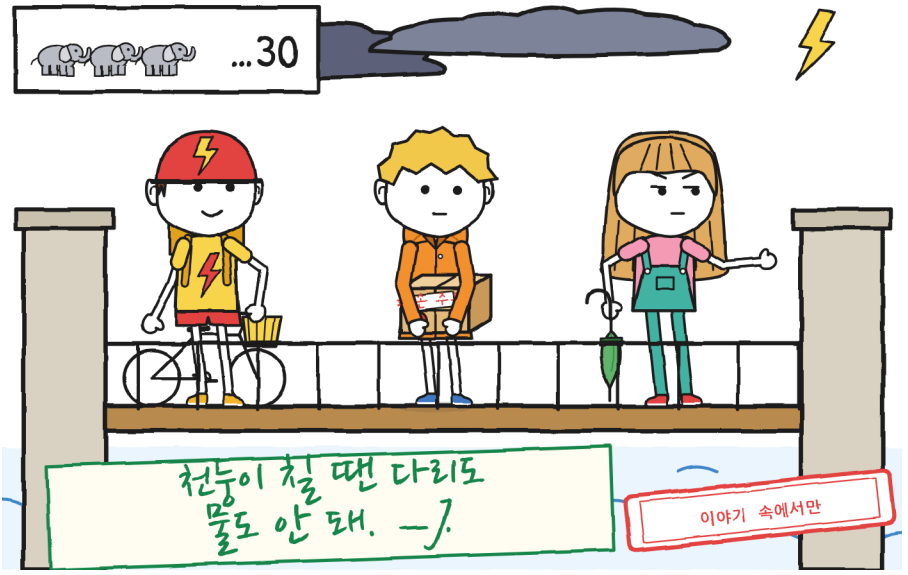
넌 천둥이 칠 때면...'뭐?! —J.

우리는 큰 다리를 건넜고, 하늘은 점점 더 새까매졌다. 밤에는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낮에는 모두가 건너는 다리다. 그 시간에 건너는 건 우리뿐이었고,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가는 아저씨 한 명이 있었다. 폭풍이 올 때는 그쪽이 맞는 방향이다. 나는 2번 택배를 두 손으로, 아주 반듯하게 들고 있었다. 토뇨는 자전거를 밀고 갔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닌데 번개배송이 그렇게 느린 건 처음 보았다.

다리 한가운데를 지날 때 훌리타는 물에게 그 무뚝뚝한 인사를 했다. 손만 짧게 들고, 웃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하듯이. 널다리에서 보낸 그날 밤 이후로 그렇게 한다. 그게 둘 사이의 약속인 것 같다. 훌리타가 인사하면 물이 지나가게 해 주는.

아주 멀리서 하늘이 번쩍했다.

구름 뒤의 깜빡임이었다. 소리는 없었다. 누가 너 없는 방의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것 같았다. 훌리타는 우뚝 멈춰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코끼리를 셌다. 아무 소리도 들리기 전에 서른까지 셌다. 나도 속으로 같이 셌다, 나의 엄청 빠른 코끼리들로. 마흔둘이 나왔다.



우르릉.

"10킬로미터쯤 떨어진 데야." 훌리타가 가늠했다. "일기예보에서 폭풍이 6시에 온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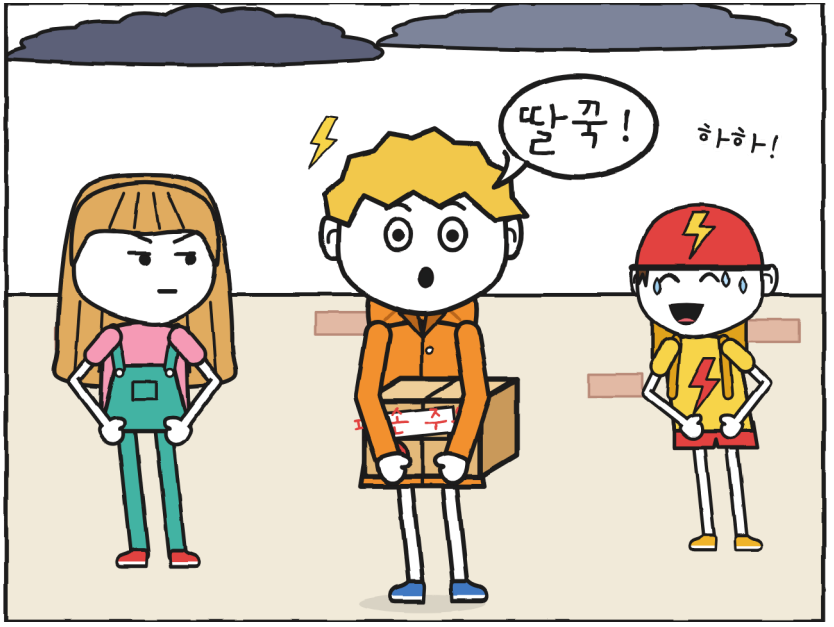
"천둥이 쳤다!" 토뇨가 소리쳤다. "이제 열어도 돼?"

"택배를 여는 천둥은 저게 아니야." 훌리타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잖아. 라벨에 쓰인 천둥은 머리 위에서 치는 거, 코끼리 0마리야. 하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안전한 데로! 뛰어!"

나는 운하길까지 달렸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우르릉도, 6시 이야기도.

"방금 딸꾹질이야?" 훌리타가 걸음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딸꾹!"



토뇨는 핸들 위로 몸을 접고 얼마나 웃었는지 자전거가 옆으로 휘청했다. 훌리타는 웃지 않았다. 쓰이지 않은 걸 읽을 때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천둥 한 번에 딸꾹질 한 번. 어릴 때부터 그랬다. 폭풍이 멀리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난다. 머리 위에 있으면 또 하나가, 또 하나가 3초마다 폭풍이 갈 때까지 이어진다. 무서운 게 아니다. 내 몸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하는 일이다. 자라는 것이나 재채기처럼. 그리고 자라는 것처럼, 아무 표정이나 지어 본다고 멈추지 않는다. 온갖 표정을 다 해 봤으니 안다.

그걸 무서운 거라고 해. —J.

운하길에서 빨강 머리 베라 아줌마가 벌써 용의 집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로라 아줌마네 문 바로 옆이다. 품에는 부스러기가 안겨

있었다. 부스러기는 나를 보자마자 내 얼굴을 했다. 늘 그런다. 나를 1초 쳐다보고, 내가 어떤 얼굴인지 확인하고, 그 얼굴을 한다.

나는 2번 택배를 토뇨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고 두 팔을 벌렸다.

"부스러기는 이번이 첫 폭풍이야." 베라 아줌마가 말하며 부스러기를 내 품에 안겨 주었다. "구니, 부스러기는 네가 하는 건 뭐든 따라 한단다. 네가 느끼는 것도. 그러니 무서워하면 잡아당기지 마. 꽉 붙잡으니까. 폭풍이 지나가면 플로라네 마당 담장을 세 번 두드리렴. 내가 데리러 가마."

"저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저는 폭풍이 엄청 좋거든요."

나는 가슴을 내밀며 말했고, 내 품의 부스러기도 똑같이 가슴을 내밀었다. 목을 쭉 빼고. 폭풍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의 살아 있는 그림이었다, 두 가지 크기로. 베라 아줌마는 같은 얼굴로 포개져 있는 우리 둘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라 아줌마는 필요할 때를 위해 말을 아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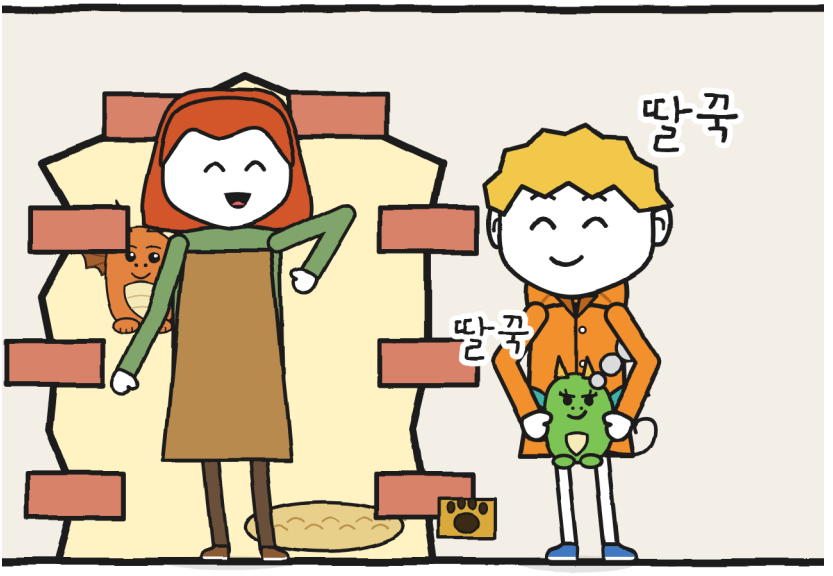
멀리서 천둥이 쳤다. 나는 딸꾹질을 했다. 부스러기도 딸꾹질을 했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났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렴." 베라 아줌마가 잘라 말하고 우리를 플로라 아줌마네 문 쪽으로 떠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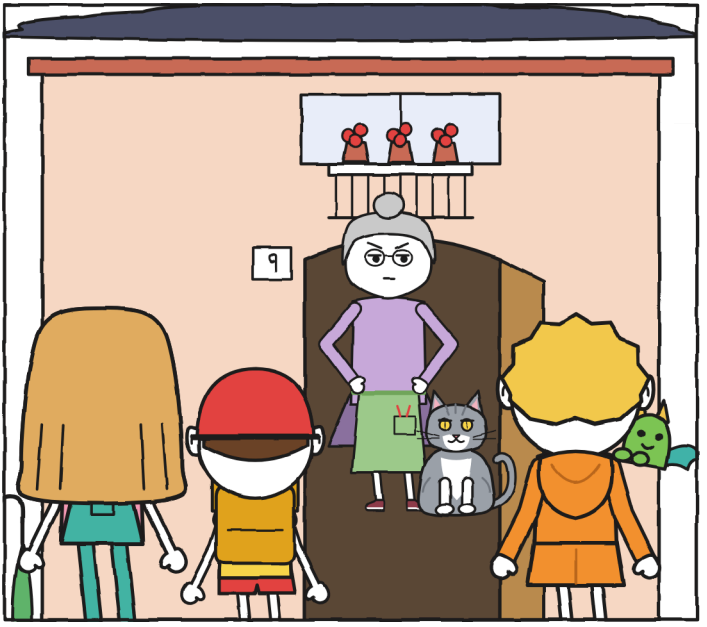
플로라 아줌마네 집은 제라늄 집이다. 지지난 토요일에 한 아주머니가 물뿌리개를 허공에 든 채 우리를 내려다보던 발코니의 바로 그 제라늄이다.

아줌마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회색 쪽 머리에 안경을 쓴 아주머니였는데, 주머니가 잔뜩 달린 초록색 정원사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발 사이에는 가슴이 하얀 회색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닌 택배를 보듯 우리를 쳐다보았다. 아줌마는 상자를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부스러기를 보았다. 그 순서로, 하나하나에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얼마 되지 않았다.



“베라네 아기 용이구나. 내 고사리를 그슬리지 않게 해 다오.” 아줌마가 말했다. “들어오렴, 비가 온단다. 그런데 미리 말해 두는데, 난 돌멩이에는 서명 안 해.”


๑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이 책에는 여섯 가지 사이즈가 있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쪽마다 들려주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더 섬세해진다. XL은 소설이다. 같은 이야기에, 구니가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을 자리가 있다.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XXS, pre-A1 · XS, A1 · S, A2 · M, B1 · L, B2 · XL, B2–C1.

각자 자기 사이즈로. 폭풍은 같아.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L 사이즈의 활동 포함)